

제10회 예배와 음악 컨퍼런스
10TH KOREAN WORSHIP & MUSIC CONFERENCE
"거룩한 식탁, 아름다운 만남"
COMMUNION AT THE CROSSROADS
August 6 -8, 2007
Stony Point Center, NY

다섯 번째: 한국 전통 마당 예배
WORSHIP V, TRADITIONAL KOREAN FOLK FESTIVAL WORSHIP

WORSHIP THEME: MEA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식탁

한국인의 만남에는 늘 식탁이 준비됩니다. 한국인은 먹거리와 친밀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마치 음식을 맛보는 듯 표현하기도 합니다. ‘맛’이라는 말은 ‘맛’이라는 말과 무척 가까운 사이입니다. 단지 한 획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늘 식탁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식탁은 인생의 가장 심오함을 경험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에서 식탁은 목회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배고픈 (목마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었습시다. 그러시더니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 놓으셨습시다. 그분의 몸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 또 오실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믿음의 대상을 먹는 제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당신의 몸을 ‘받아먹어라’ 하십니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과 더불어 우리의 몸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배, “하나님의 식탁”은 내 육체를 통하여 씨 뿌리고 땀 흘려 가꾸고 추수한 것들을 이웃과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왕국의 식탁을 경험합니다.

이 예배는 지금까지 서구 신학적 이해에서 생성된 예배언어에서 한국적인 영성이해와 한국 신학적 해석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예배를 한국의 토착적인 언어와 전통적 영성으로 전환하려 할 때, 일어나는 심한 충돌이 있지만 깊이 따져보면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의 언어들과 우리의 영성은 통일성 없이 한없는 평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천년 동안 통일성을 이루며 살았던 우리의 말과 몸짓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과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예배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배 작성자, 김승남

참고문헌 (Resources)

- 희년예배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6, Dec.(Seoul, Korea)
관중과 예배 (Come, Let us Worship) 미국장로교 한영찬송가 Geneva Press 2002 (Louisville, Kentucky)
박근원, *교회예배서*, 도서출판 진흥 1994 (Seoul, Korea)

다섯 번째 한국 전통 마당 예배
WORSHIP V, TRADITIONAL KOREAN FOLK FESTIVAL WORSHIP

예배를 알리는 징소리 (징을3번 부드럽게 친다) 인도자

헌물 들고 나오기 “땅을 골라 물을 대어” 찬양대

모두 ‘풍년가’ 가락과 장단에 맞춰서
선창자에 따라서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성만찬상에 바친다

1. 땅을골라 물을대어 기름지게 하시나니
고곡백화 주렁주렁 대풍들게 하시었네
2. 주님친히 아랑파고 단비내려 물대시니
젖은땅에 돋은새싹 축복듬뿍 받았구나
3. 우리주님 은혜로 한해농사 풍성하니
주가는 모든길에 기름철철 넘치도다
4. 거치른땅 황야에 푸른초장 뒤덮이여
넓은언덕 작은산이 기쁨으로 단장하네
5. 방독마다 소여물 골짜마다 열매가득
주님주신 기쁜노래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뢰기 인도자

인도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너희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농산물의 첫 열매를 담아서...제사장에게 가서...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하여라.” (신명기 26:1-3)

장 로 주님, 우리들은 약하고 넉넉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누워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해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저희는 게을러서 뿌린 것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뿌리고 거두어 주시니,
저희에 삶이 넘칩니다.
저희에게 만나와 베푸라기가 끊어진 적이 없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굳세졌습니다.
저이 열매가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늘의 은총이 넘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거둔 귀한 것들을 정성껏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다같이 주님,
정성어린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거둔 의로운 열매이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 복과 평화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모시기 다 같이

주님,
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창조주님을 알아 뵈고,
이처럼 예를 갖추어 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 공동체위에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감사 잔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닐리리야” 가락에 맞추어 ‘주 납신다’를 부르며,
주님을 감사 잔치에 맞아들인다

1. 주납신다 주납신다 거룩한 성전에 주납신다. 닐닐리리
닐리리야
한데알려 얼싸안고 주 찬양하면서 한 백성이라
닐닐리리 닐리리야
2. 보소보소 주님보소 우리의 임금 거동보소
닐닐리리 닐리리야
한데알려 얼싸안고 주 찬양하면서 한 백성이라
닐닐리리 닐리리야
3. 앞에서는 노래패가 뒤에선 춤패가 주모시네
닐닐리리 닐리리야
한데알려 얼싸안고 주 찬양하면서 한 백성이라
닐닐리리 닐리리야
4. 처녀들이 장구치며 사방을 돌면서 소리치네
닐닐리리 닐리리야
한데알려 얼싸안고 주 찬양하면서 한 백성이라
닐닐리리 닐리리야
5. 주님찬양 주님찬양 주 믿는 백성아 주님찬양
닐닐리리 닐리리야
한데알려 얼싸안고 주 찬양하면서 한 백성이라
닐닐리리 닐리리야
6. 모든백성 무리지어 앞서거니 뒷서거니 주따른다.
닐닐리리 닐리리야
한데알려 얼싸안고 주 찬양하면서 한 백성이라
닐닐리리 닐리리야

♩=70

(후렴) 읊 면 서 씨 뿌 리 러 나 가 는 사 람 들 은
Wool Myun Sah Saeo Ppoo Rra Rra Nah Gah Neun Sah Raheun Deul Eun
 (R) Those who sow weep- ing in tears will re- turn with songs of joy.

기쁨 으 로 거 두 리 라 단 거 두 어 들 아 오 리
Kee Ppaeun Eu Rok Kah Doo Rra Rra Dahn Kah Doo Uh Dol Ah Oh Rra
 The Lord has done won-der-ful things and glad are we, in- deed, in- deed!

(후렴)	시온의	포로들을	주님께서	돌리실때
	우리들은	마치도	꿈꾸는자	같았었지
	바로그날	입에서는	웃음꽃이	터지고
	혀에서는	크나큰	찬송이	터졌네
	바로그때	못백성들	놀라서	말하였네
	주님께서	저들위에	엄청난일	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위해	놀라운일	하셨을때
	우리들은	그얼마나	감격으로	기뻐던가
	네집의	시내들에	다시물이	흐르듯이
	포로였던	저희에게	감격으로	기뻐던가 (후렴)

기 도 우리 중
 기 도 송 다 같 이

-운영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고
 당신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성 경 요한복음 12:1-8 양춘길목사
 (회중 대표들이 나아와, 교회력에 따라 새 본문을 읽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내려 주십니다.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몸에 받겠습니다.
 (말씀송, "밀양 아리랑"의 첫 소절에 맞추어)
 아리아리 주님말씀 등불이네
 내가는길 밝히시는 빛이시네

노래 봉헌 찬 양 대
 (성가대가 노래를 봉헌한다)

말씀 선포 양춘길목사

말씀 응답송 다 같 이
 (말씀 응답송, "풍년가" 첫 소절에 맞추어)
 은혜로다 은혜 주님 말씀이 은혜로다

성도의 교제 다 같 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한다.)

중보 기도 인도자와 같이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감사의 잔치를 즐기지만
 우리민족은 아직도
 분단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송, "새야 새야"에 맞추어)
 주여 주여 우리 주여 이 내 아픔 들으소서

주님, 저희는 오늘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흥겹게 나누지만,
 넉넉하지 못한 이웃과 겨레가 있습니다.
 이 풍요를 고루 나누어
 다같이 즐거운 잔치에 들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주여 이 내 아픔 들으소서

주님, 오늘의 이 열매가 저희만의 것이겠습니까?
땀 흘린 모든 이웃과,
우리를 있게 한 선조들과,
이 나라를 지켜온 의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주여 이 내 아픔 들으소서

(목사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목회기도를 더 드릴 수도 있다.)

성만찬 상 차리기 인도자와 같이
(회중은 '거룩송'을 부르며 성만찬 상을 차리는 것을 지켜봄으로 상차림에 참여한다.)

처음손



성만찬 이야기 인도자와 같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지요
떡을 드시고는 ‘내 몸이니 먹어라’ 하셨고,
포도주를 드시고는 ‘내 피니 마셔라’ 하셨습니다.
몸을 찢어 주고 피를 내주신다는 사랑의 말씀이십니다.
그날 밤의 떡과 포도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구원과 생명이 왔습니다.
부활이 왔습니다.
이후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이 성만찬을 생명과 감사의 만찬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떡을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주님의 보혈로 받으며,
이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우들과 한 몸이 되어
생명의 친교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나누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온 몸을 다 내어 주신
귀한 일을 기념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벗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성만찬의 자리에 앉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과 이웃과 뭇 생명에 대해서,
죄와 허물이 큼을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죄를 쉽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신비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저희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기도

다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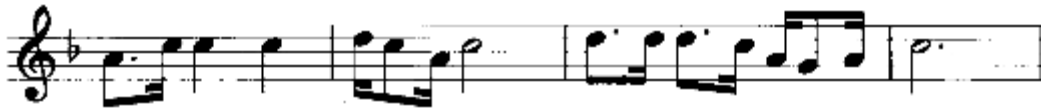
채일손



하 - 늘 에 세 시 는 - 우 - 리 의 아 버 지 여
 오 늘 날 도 우 리 에 게 일 용 양 식 주 옵 시 고
 우 리 모 두 세 상 유 혹 물 리 치 게 하 옵 시 고



그 이 름 을 거 록 되 이 어 김 받 게 하 옵 시 며
 우 리 에 게 빛 진 이 를 너 그 럽 게 화 주 듯 이
 이 세 상 의 악 에 서 도 구 원 하 여 주 옵 소 서



그 나 라 를 어 서 속 히 오 게 하 여 주 옵 시 고
 우 리 들 이 지 은 빛 도 너 그 럽 게 화 주 시 고
 그 나 라 와 모 든 권 세 아 버 지 께 있 나 이 다



하 늘 뜻 을 땀 에 서 도 이 - 루 이 주 옵 소 서
 우 리 들 의 다 른 죄 도 용 서 하 여 주 옵 소 서
 영 원 토 록 그 영 광 이 아 버 지 께 있 나 이 다

성만찬 나누기

인도자와 같이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떡을 받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오십니다.

이 포도주는 구원의 잔입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마실 때

그리스도와 저희는 하나가 됩니다.

감사 기도

..... 다 같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방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가 죄와 악에서 풀려나
하늘의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성만찬 안에서
저희 인생에게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정의 하나님,
이 풍성한 하늘 열매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열매를 나눌 때
온 누리에서 기쁜 노래가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보냄과 다짐

..... 인도자와 같이

이제 감사의 예배를 마칩니다.
만찬거리가 많으니 예배를 마치고 풍성한 잔치를 엽니다.

즐거운 잔치 예배였지만,
 주님을 모시고 드렸으니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의 삶을 바쳐,
 이 세상에 주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주께서는 우리를 높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6:16-19)

주님, 감사합니다.

보냄 찬송 다 같이

1편 CLUW #393의 “복되어라 이런 사람”의 가락에 맞추어서)

♩=70

(후렴) 1 복 되어라 이런 사람 악인의 죄 좇지 않고
 죄인의 길 걷지 않고 오만 한 데 앞지않네

2. 복되어라 이런사람 오직기쁜 마음으로
 주의율법 낙을삼아 밤낮으로 묵상하네
3. 복되어라 이런사람 시냇가의 나무처럼
 철따라서 열매맺고 그잎사귀 푸르르니
 하는일이 잘되어서 만사형통 은혜일세
4. 악한자는 이와달라 흠날리는 겨와같네
5. 그러므로 악한자는 주님심판 못견디며
 죄인들이 의인모임 들어오지 못하겠네
6. 악인의길 멸망하나 의인의길 보호받네
 악인의길 멸망하나 의인의길 보호받네

축복 기도 양춘길목사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풍물을 신나게 치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